

중증 응급환자의 치료법을 개선해 생존률을 높이다



김원영 교수는 심정지, 패혈증, 허혈성 뇌손상, 급성호흡부전 등 중증 응급환자의 치료법 개선을 통해 서울아산병원 응급실 생존율을 크게 높이는데 기여했다.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을 찾은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국내 평균의 6배에 해당하는 약 30%다. 한두 사람이 하루아침에 만든 성과는 아니지만 구심점은 있었다. 김원영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다. 그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최초로 서울아산병원 응급중환자실이 논의되던 당시부터 참여해 지금까지 응급의학의 최전선을 지켜왔다. 치료에 힘쓰는 것은 물론 꾸준한 임상연구로 응급의학 현장의 판단 기준을 만들고 관련 정책 결정에도 기여하고 있다.

응급중환자실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다

1998년 서울아산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시작한 김원영 교수는 국내 최초로 응급의학, 중환자의학 두 분야의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응급중환자실 개소와 정착을 위해 열정적으

로 일했다. 응급중환자는 동시에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안정화 후 어느 진료과로 보낼지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진료과마다 관점이 다를 수 있어 최종 결정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환자 상태가 나빠질 수도 있다. 정확히 진단하기 힘든 중증환자라도 최대한 빨리 처치나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즉 응급중환자실이 필요한 이유다. “응급중환자실이 논의되던 초기에 합류했지만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다양한 증상을 다룰만한 확신과 훈련을 해야 했고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심어 주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김원영 교수는 패혈증과 심정지 질환에 먼저 집중했다. 비교적 익숙한 한두 가지 질환에서 성과를 내 응급중환자실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였다. 그 결과 응급중환자실은 이내 체계를 갖췄고 환자들의 예후도 확연히 좋아지기

시작했다.

지속적인 연구로 응급중환자 치료의 디딤돌을 만들다

2017년에는 심혈관 질환이 아닌 지주막하 출혈로 심정지에 이른 환자를 바로 판별해 내는 시스템을 개발해 불필요한 심혈관조영술을 방지하는 데 기여했다. 2020년에는 패혈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최초의 임상시험을 통해 패혈증 쇼크 환자에게 비타민C와 비타민B1을 투약하는 것이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을 발표했다. 두 연구 모두 이전까지 당연하게 여겨졌던 방법이 아닌 더 나은 치료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에는 심폐소생술 후 목표체온 유지치료, 일명 저체온 치료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심정지로 뇌를 다치면 24시간가량 지속적인 손상이 올 수 있는데 이때 체온을 1℃ 낮추면 뇌 활동이 6% 정도 줄어들어 뇌세포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원영 교수는 “목표체온 유지 치료를 받은 환자의 25~30%가 뇌손상 없이 회복됐다”라며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진료하다 생긴 궁금증을 해결하려면 연구를 해야만 합니다. 그 결과로 환자의 상태가 좋아지고 다른 의료진의 진료에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계속 이어가야 하죠. 그런 의미에서 연구는 디딤돌을 하나하나 만드는 일이 아닐까요?”

환자가 좋아질 때 가장 행복한 의사

대학병원 교수의 공통 의무인 교육·연구·진료에 더해 김원영 교수는 행정까지 아울러왔다. 응급의학과와 특성상 원내 다양한 진료과와 협업해야 하고 소방청과 보건복지부 등 원외 기관과의 협력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응급의료법을 바꾸면 전국 응급실에 바로 적용할 수 있고, 그 결과로 더 많은 환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는 김원영 교수가 바쁜 틈을 쪼개 응급의료전달체계 관련 정책연구를 지속해 온 이유다.

응급의학과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의료진의 근무 환경도




응급실 의료진과 논의하는 김원영 교수.



김원영 교수가 응급중환자실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개선되어 왔지만 김원영 교수의 일상은 더 분주해졌다. 새벽부터 콘퍼런스와 회진을 하고, 응급실 맨 앞단에서 하루 150명이 넘는 환자를 분류한다. 진료 중 생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도, 응급의학 발전의 토대가 될 교육도 놓칠 수 없다. 그래도 스스로는 아쉬움이 많다.

김원영 교수는 “진료를 많이 해서 경험을 쌓고 연구와 행정을 통해 확장하는 등 모든 것을 갖춘 후 교육에 한층 매진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후배들에게 한 가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는 훌륭하게 만들어주겠다고요. 그러려면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죠.”하며 각오를 다졌다.  글 최주연